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 석사학위논문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

-Pull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ROK's FDI to Vietnam

- Focusing on Pull Factor-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NGUYEN THI VAN ANH

ROK's FDI to Vietnam

- Focusing on Pull Factor-

Thesis by

NGUYEN THI VAN ANH

Graduate Program in Korean Studie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015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

- Pull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7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응웬티번안

응웬티번안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7월

위 원 장 _____은기수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김현철_____ (인)

위 원 _____박태균_____ (인)

ROK's FDI to Vietnam

- Focusing on Pull Factor-

Park, Tae-Guyn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July 2015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GSIS

NGUYEN THI VAN ANH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NGUYEN THI VAN ANH

July 2015

Chair Eun, Ki-Soo (Seal)

Vice Chair Kim, Hyun-Chul (Seal)

Examiner Park,Tae-Gyun (Seal)

Copy Right © 2015 by NGUYEN THI VAN ANH

All Rights Reserved

<국문 초록>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 Pull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1980 년대말 부터 한국은 고성장의 후유증으로 노동력부족과 임금인상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90 년대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 넓은 시장등 매력적인 투자요건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 전 세계 제일의 투자 시장이 되었다. 그런데 고성장에 따른 상승하게 된 인건비 때문에 중국이 이런 투자 우위가 점점 없어지고 2000 년부터 다른 외국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새로운 시장을 찾기 시작하여 다른 아시아와 남미쪽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 추세가 되었다. 이런 새로운 투자 시장 중에 아세안권의 베트남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국 1 위로 각광 받고 있다. 본 논문이 한국의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기존 연구를 이어서 다른 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질문을 답하고자 한다.

- 한국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은 왜 아세안권의 그 중에 베트남에 투자 결정을 선호하는가?
- 현재 한국의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유형이 무엇인가? 미래에는 어떤 추세로 변화할가? 또한 이런 투자 유형이 베트남 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첫번째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기디&영 이론을 활용하고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받는 다른 아세안국가과 비교하며 베트남의 유리한 pull 요인을 찾아보았다. 특히 기디&영 이론이 언급한 한국인 투자국이 시장의 경쟁력, 유행 및 안정성을 파악하기에 도움이 되는 경쟁기업과 하청기업에 관한 pull 요인을 중시 분석하였다.

두번째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필자는 해외직접투자를 미국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한 고지마 이론을 활용하였다. 미국형 해외직접투자는 독점 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자기의 자본, 기술, 관리 능력 무기로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유형이다. 이와 달리 일본형은 투자국의 표준화되었지만 약화된 열위산업을 투자유치국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일본형 방식은 투자국의 산업을 유지하면서 개발 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이 자기 기준과 알맞은 신기술을 습득하여 충분히 자기 산업을 개발함에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이 개발 도상국인 투자유치국으로서 이런 일본형 방식으로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한국의 투자를 받고자 한다. 그런데 검증 결과는 한국이 베트남에 일본형을 미국형으로 투자 방식을 변화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베트남 경제에 불리한 점일 수가 있다. 베트남 산업고도화 분석을 통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해외직접투자, 베트남, pull요인, 기디&영 이론, 고지마 이론

학번 : 2013-22718

목 차

제 1 장. 서론.....1

1. 문제제기 1

2. 연구 목적 및 방법 4

3. 기존 연구 4

4. 해회직접투자 이론적 정리 7

4.1. 해외직접 투자의 개념 7

4.2. 절충이론 (EclectricTheory) 8

4.3 기디&영(Giddy&Young) 이론..... 9

4.4 고지마 (Kojima) 이론..... 11

제 2 장. 한국의 대아세안과 베트남에 투자 현황 14

1. 한국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 현황..... 14

1.1 한-아세안 관계 14

1.2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진출 현황..... 15

2.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 현황..... 17

2.1 한국과 베트남 교역 관계 17

2.2 아세안에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진출 현황..... 18

제 3 장. 베트남에서의 한국기업 진출 현황 21

1. 투자 규모 및 형태 21

2. 투자 업종 23

2.1 1992 년 ~ 2001 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업종 23

2.2 2002 년 ~ 2014 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업종 27

제 4 장. pull 요인에 대한 분석 31

1. 가설 1 검증: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베트남의 유리한 조건..... 31

1.1 경쟁 기업과 하청 기업의 진출 현황..... 31

1.1.1 경쟁 기업 진출 31

1.1.2 하청기업 진출 35

1.2 지리적 위상 및 국제협력관계..... 36

1.2.1 지리적 위상 36

1.2.2 국제협력관계 37

1.3 한국기업 투자목적와 베트남정부의 알맞은 지원정책..... 39

1.3.1 투자형태 지원 39

1.3.2 지역의 독립적으로 경제 개발 및 투자 유입 정책..... 41

1.4 노동력 이점 44

2. 가설 2 검증: 베트남 정부에서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한국의 일본식 해외직접투자를 받고자 한다 47

2.1 투자 규모 및 세밀 업종 통한 검증..... 47

2.2 베트남의 산업고도화 현황..... 52

제 5 장. 결론.....56

참고 문헌 59

Abstract 61

< 표차례 >

< 표 1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업종 5 (1992 년~2001 년)..... 25

< 표 2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업종 5 위(2002 년~2014 년)..... 28

< 표 3 >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주요 한국대기업의 진출 시간 32

< 표 4 > 한국의 베트남에 5 위 투자폼목 (세부)..... 50

<그림 차례>

< 그림 1 > 2009 년~2014 년, 한국의 대아시아에 투자 금액 비교 16

< 그림 2 > 한국의 대아세안에 해외직접투자 금액 19

< 그림 3 > 2015 까지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한국기업 신고건수 21

< 그림 4 > 2015 년까지 투자 규모별 한국의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금액 ... 22

< 그림 5 > 베트남에 한국의 투자 형태 23

< 그림 6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경향(1992 년~2001 년)..... 26

< 그림 7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경향(2002 년~2014 년)..... 29

< 그림 8 > 한국의 아세안에 단독투자 금액 비교 41

< 그림 9 > 베트남 인구 상황 44

<그림 10> 2010,2013,2020 년 베트남 인구탑 45

< 그림 11 > 투자규모별 한국의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단독투자 금액 비교48

제 1 장. 서론

1. 문제제기

세계화는 현재 국가들 간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세계화는 국가간의 경제적 교환,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형성한다. 국가간의 투자는 경제의 세계화를 앞당기며 이 투자의 현상은 교역 및 경제적 의존도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 중에 이러한 국가간의 해외 직접투자는 국가 성장의 기회이며 투자 받는 국가에게는 이러한 투자를 받고자 하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국가들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며 상대국가에 진출하는 방법이다. 제일 중요한것은 투자하는 국가와 투자받는 국가의 경제적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1980 년대말 부터 한국은 고성장의 후유증으로 노동력부족과 임금인상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은 해외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90 년대 중국과 수교를 맺으며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 넓은 시장등 매력적인 투자요건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투자를 받아 현재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중국은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되며 중국 시장에 외국의 강력한 투자는 중국 경제를 급격히 발전시키는 현실을 부정 할 수 없다. 그런 중국경제의 고성장이 높인 생활 수준,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등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왔다. 노동 및 인건비는 특히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투자 결정 요인중에 하나이다.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는 새로운 시장을 찾게 되며 다른 아시아 국가 및 남미가 새로운 투자 목적지가 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다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 및 남미쪽에 투자를 진출하며 그 중에서 아세안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시장이다.

아세안은 1967 년에 설립되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체이며 세계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었다. 특히 세관, 수출입 업무 등에 관한 교역 장벽을 없애고 투자 국가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잠재력이 있는 투자시장 및 지리적으로 연관된 지역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90 년대부터 아세안과 교류, 투자, 관광, 기술이전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995 년에 아세안에 가입한 베트남은 이제는 아세안의 중요한 회원국이며 아세안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1992 년에 한-베수교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2001 년 8 월에 한국과 베트남은 '21 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고, 2009 년 10 월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켰다. 현재 한국은 대베트남의 투자를 예전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여 베트남의 투자국가중 최고의 위치에 있다. 베트남 해외투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 년 제 1 분기에 한국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32 국가 중의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은 현재 베트남에 투자하는 자본의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2 위로 밀렸다.

1992 년에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맺은 후에 대우, LG, 삼성, Posco 등 한국 대기업들이 냉장고, TV, 스마트폰, 노트북, 철근 등 자기의 주요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기 위하여 전략적 투자국으로 베트남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나날이 투자 규모는 점점 확대 되며 공장을 설립하는 프로젝트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형적인 예로 삼성이 베트남에서 세계 최고 규모의 자사의 경쟁력있는 상품을 생산하여 한국 및 해외에 수출하려는 공장을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2015 년에는 삼성이 하이 테크 공장을 하나 더 건설하고 있다.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며 확대하는 이유는 베트남이 잠재력이 있고 우선 선택권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 여겨진다고 본다. 그럼 삼성을 비롯해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 결정을 선택하고 나아가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투자국의 push 요인과 투자유치국의 pull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필자는 베트남 사람으로써 투자유치국인 베트남의 해외직접투자를 끌고 있는 pull 요인을 분석하기를 선택하였다. 이런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자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가설 1: 다른 아세안 국가와 비하여 베트남의 pull 요인이 강하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베트남이 소유하는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설 2: 베트남 정부에서 산업고도화를 위해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받고자 한다. 고미자는 해외직접투자를 미국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한다. 산업고도화 방향으로 개발하는 개발 도상국으로서 베트남 정부는 일본형 해외직접투자로 한국 투자를 받고 산업고도화가 되고자 한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형을 검증함으로서 이런 베트남 정부의 목적이 이룰 수 있는가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위 가설을 검증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이루기로 한다.

- 한국의 베트남에 투자하는 중심 업종이 무엇인가, 또한 시기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경향을 알아본다.
- 다른 아세안과 비하여 베트남의 한국 해외직접투자를 끌어오는 유리한 조건을 찾아본다.
- 한국의 현재 및 미래에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형이 무엇인가 알아본다.
-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추구하는 방식이 베트남의 산업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재평가한다.

위에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선 기디&영 및 고지마 이론을 활용하였다. 다음에 한국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자료를 한국 수출입은행 정보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pull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투자, 경제 통계부 및 신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3. 기존 연구

2007 년 WTO 에 가입한 베트남은 이후 많은 학자들이 전 세계의 해외직접투자가 베트남에 몰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주제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학자들 역시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들이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 현황, 경제적 효과, 동기 및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였다.

류재영 (2009), 손승호 (2008), Mai Kim Chi (2011), Phung Van Tiep (2014)의 연구는 한국의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현황, 동기, 전략, 특징, 경제적 효과 및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류재영 (2009)는 다국적 회사를 바탕으로, 또한 Phung Van Tiep (2014) 삼성, 효성, LG 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베트남에 투자 동기를 분석하면서 베트남 시장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투자 전략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Mai Kim Chi (2011)의 연구는 다이아몬드 모델 및 불균형 이론을 활용하여 생산 요인과 시장 요인 그리고 관련 및 지원 산업과 전략, 구조 및 경쟁관계의 변수를 검증하며 어떤 변수가 한국 투자자에게 베트남의 우위 요인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검증 결과는 (저렴한 인건비) 생산 요인, (시장 개척 잠재력) 시장 요인 및 (과학기술 및 교통. 인프라 개선) 관련 및 지원 산업은 베트남이 한국에게 투자할만 한 대상이 되는 요인이다. 부정부패, 복잡한 법률 시스템, 노사문제 등과 같은 요소 때문에 베트남의 전략,구조 및 경쟁관계 요인이 약하고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장애이다. 또한 Mai Kim Chi (2011), 손승호 (2008)의 연구는 경제적 효과까지 분석하였다. 손승호 (2008)는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에 집중하여 총산출액과 GDP 증가 및 수출 유발효과에 기여한다고 분석하였다. Mai Kim Chi (2011)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한국이 베트남보다 이익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론을 낸다.

2000 년까지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투자시장이였으며 이후에 한국이 아세안와 남미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은 아세안에 대한 한국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1 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을 대체하는 한국의 차세대 해외 투자 시장이라고 판단 된다.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을 비교하는 연구 주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장상애 (2008), Wang Xuemei (2011)의 연구는 한국의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는 한국의 베트남과 중국에 투자 하는 동기, 업종, 방식의 공동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여 동시에 이런 요인이 경영 성과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저렴한 인건비는 한국이 두 나라에 투자하는 가장 큰 동기이다. 그런데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우위가 점점 없어지고 베트남에 넘어간다. 장상애의 2008 년까지의 검증 결과는 중국이 유통업개방과 국제경제적 확대에 힘입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이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이 제조업보다는 중국의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추세가 보여진다. 베트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윤율 차이가 미미하니 중국이 인건비의 우위를 상실하게 되는 현황이 결합되어 한국이 제조업 투자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점점 이전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이 베트남의 투자에 대한 pull 요인을 어느 정도 분석하였다. 필자는 이런 기존 연구와 다른 자료, 정보 및 기디&영 이론를 결합하여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하여 제일 유리한 베트남의 pull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런 요인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산업고도화라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검증하면서 베트남의 투자를 받는 효과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다른 각도로부터 분석함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상황을 더 이해하는것에 기여한다고 희망을 갖고자 한다.

4. 해회직접투자 이론적 정리

4.1. 해외직접 투자의 개념

1997 년에 IMF 는 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의 국가에서 말고 타국에 투자하는 금액으로 이익을 받는 사업 행동으로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관여하여 투자시장을 확대한다고 정의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 2 개국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자본, 기술, 마케팅 등 경영자원을 종합적으로 투자유치국에 이전하여 투자하는 형태이다.

투자국에게는 해외직접투자는 생산 최적화 및 소비 시장의 확대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다. 생산최적화는 국내의 점점 상승하는 인건비 및 고갈되어지는 자원 등과 같은 약화된 요건을 다른 시장으로부터 찾고 이용하며 생산 비용을 줄이면서 상품의 경쟁력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자기나 자기의 경쟁자의 물건이 국내와 기존 투자 시장에 넘치면 그들이 이 물건을 소비하기 위하여 해외에 투자함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을 찾고 확대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에서의 생산과 비교하여 투자국에서 생산할때 국내와 달리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로는 시장개척, 자원개발, 생산 효율 증대, 관세면제 등의 동기에 의해 진행된다.

투자유치국은 대부분 개발 도상국이며 해외직접투자는 자본, 기술 및 관리 능력을 습득하고 이전하는 기회이다. 즉 투자유치국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자본을 받고 산업고도화 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며 세계적 기업 관리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의 경제구조를 이전하는 기반이다. 대부분 투자국이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농업중심 경제 구조에서 산업중심으로의 경제구조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

해외직접투자는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투자국의 push 요인과 투자유치국의 pull 요인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과 아세안의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보면 push 요인이 동일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투자국은 한국하나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와 다른 pull 요인을 찾고자 pull 요인 중심으로 이론적 정리를 하고자 한다.

4.2. 절충이론 (EclectricTheory)

Dunning 의 Electr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절충이론)은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및 내부화 우위요소와 생산 입지상의 우위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

우선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는 기업의 자기만이 일정기간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이런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1] Dunning, J.H., Explaining Outward Direct Investment of Developing Contries, in K.Mur and M. G. Mcleod(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ntries, Lexington, Massachusettes: Lexington Books, 1981, p.3

소유하여야만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두번째 내부화 우위요소의 요건은 이 기업이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외부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내부화가 되면 시장에의 접근, 협상, 통제 등 외부거래에 수반되거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경비의 절감할 수 있으며 외부거래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와 내부화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에는 이 요소들을 현지국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이용할 때 그 이익이 커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생산 입지상의 우위요소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의 규모, 성장 가능성, 투자유치국 시장에서의 경제, 무역과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해외에의 진출 형태가 결정된다. 즉,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만 충족될 경우에는 간접적인 자원이동방식이,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와 내부화 요소가 충족될 경우에는 수출 방식이 그리고 세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2]. 또한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와 내부화 요소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 push 요인으로 여길 수 있으며 마지막 피투자국에 관한 생산 입지상의 우위요소가 pull 요인으로 볼 수 있다.

4.3 기디&영(Giddy&Young) 이론

기디&영 이론은 개발도상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기디&영의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기업

[2] 손승호, 한국기업 베트남 직접투자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1996-2000 투입산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p.28

특유의 우위가 강하지 않고 독과점적 시장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입지 특유의 우위가 작용하면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즉 개발도상국 투자자들은 대체로 기업특유의 우위가 낮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에서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절감할 수 있어야 해외직접투자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기디&영은 개발도상국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시에 투자유치국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현지 파트너와 합작투자를 함으로써 현지투자국의 시장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비교적 쉽게 수집하고 투자자금을 최소화 한다. 둘째, 기존의 경쟁 기업들이 이미 투자한 국가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함으로써 현지투자국의 경쟁구조와 경쟁유형을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파악한다. 셋째, 자기 회사와 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이미 진출한 외국시장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함으로써 안정된 시장을 확보한다. 넷째,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낮은 세율이나 이자율 등과 같은 투자유인책을 많이 제공하는 국가에 투자한다. 다섯째, 자기 나라와 언어나 문화적 환경이 유사한 현지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사회, 문화, 심리적 거리감을 최소화 시키고자 한다. 여섯째, 투자 본국보다 경제적으로 뒤쳐진 지역의 국가에 투자하여 치열한 경쟁을 회피한다.[3]

---

[3]손승호, 한국기업 베트남 직접투자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1996-2000 투입산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p 32

기디&영은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보다는 입지 요인에 의해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push 요인보다는 pull 요인에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4.4 고지마 (Kojima) 이론

고지마는 해외직접투자의 현상을 단순히 개별 기업적 경영활동이라는 차원에 국한시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적 또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 투자국과 투자유치국간의 현실적 비교생산비를 기초로 하여 투자국은 자기의 어떤 비교열위인 사업이 투자유치국에 투자하면 투자유치국의 비교우위인 사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며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였다. 이때 해외직접투자는 양국의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며 양국간의 무역은 확대됨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국민후생이 향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지마는 양국의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동일한 원리로서 설명하고 이를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통합적 이론인 동시에 통일적 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고지마는 해외직접투자를 미국형 해외직접투자와 일본형 해외직접투자로 구분하였다. 우선 미국형 투자는 세가지 특성으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독과점 대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자본, 기술, 경영능력 등 경영자원의 우위를 무기로 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시장지향적 해외직접투자를 행한다. 둘째, 비교우위 구조상선발 성장산업

[4] 문해진,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p 20

(전기, 전자, 기계, 의약 등)부터 미시적 관점에서 진출한다. 셋째, 세계에 구축된 자회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반 거래의 내부화로 거래비용의 절감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여, 이를 다국적 기업형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5].

1970 년 이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양적 증가와 더불어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들 및 미국형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미국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 있다. 첫째,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원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자원지향적, 노동지향적 투자를 실행한다. 둘째, 비교우위의 구조상 비교우위가 약화되거나 표준화된 산업 (섬유, 의복 등)에서 거시적 관점에 의해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 즉,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투자국의 비교열위 산업이 투자유치국의 비교우위 산업으로 전환됨으로서 양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키고, 상호간의 무역 확대를 가져오게 한다[6].

해외직접투자를 이런 유형으로 분류함에 따라 미국형 투자를 역무역지향형 투자로 일본형 투자를 무역지향형 투자로 규정한다. 투자유치국의 입장 및 경제구조로부터 살펴보면 개발 도상국은 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 개발 수준도 낮기 때문에 투자국 중소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

[5] 손승호, 한국기업 베트남 직접투자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1996-2000 투입산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p.20

[6]문해진,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p 20

자원이나 보조기술을 공급하는 능력을 갖는 산업에 관한 중급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기술이전 및 고용확대 등의 파급효과가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서 산업고도화가 될 수 있다. 시장을 독점적 지배하는 대기업의 투자 유형과 투자유치국의 수준과 너무 동떨어진 고급 기술을 투자유치국이 투자를 받고 기술을 습득하려 해도 이전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기업에게 넘겨질지도 모른다. 이러면 개발도상국의 기업과 공장은 없어지고 생산노동자도 직업을 잃게 되며 공장의 땅주인과 건물주도 역시 곤경에 처하게 된다. 포괄적으로 보면 양국의 산업고도화를 추구하는 일본형 해외직접투자 방식은 투자유치국에게 바람직한 방식이며 베트남도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일본형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제 2 장. 한국의 대아세안과 베트남에 투자 현황

1. 한국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 현황

1.1 한-아세안 관계

동남아시아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다고 할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원유 및 천연가스와 주석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한국의 자본가들이 투자하기 선호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치. 경제.무역.문화 교환을 확장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아세안이 한국과 주로 전략적 동반자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 한.중.일 세 나라 간의 협의기간인 'ASEAN+3'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더욱 긴말한 외교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며 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무역증대를 위한 노력은 2007 년 6 월에 발효된 한-ASEAN FTA 협정과 2009 년 5 월에 발효된 한-ASEAN FTA 서비스협정에서 그 결실을 보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09 년 6 월 초에 ASEAN 10 개국 정상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ASEAN 특별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상호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2009 년 9 월부터 발효시켰다. 한국정부가 아세안에 이처럼 관심을 갖고 그 관계에 정성을 들이는 것은 이 지역이 한국에 있어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2009 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외무역중에 11.2%를 차지해 21.6%의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였다. 동남아시아는 한국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ASEAN+3'외에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를 중심으로 한국의 아세안과 동남아시아 지역 공동체 구축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경제적.외교적 협력관계가 증대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아세안 전반적인 경제 협력 협정은 2005 년 12 월에 체결하였다. 이는 한국이 2008 년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2010 년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싱카포르, 필립핀과 협정을 맺었고 베트남과는 2016 년에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과 아세안의 노력으로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2010 년 1 월 1 일부터 유효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아세안의 국가들과의 투자를 확대하며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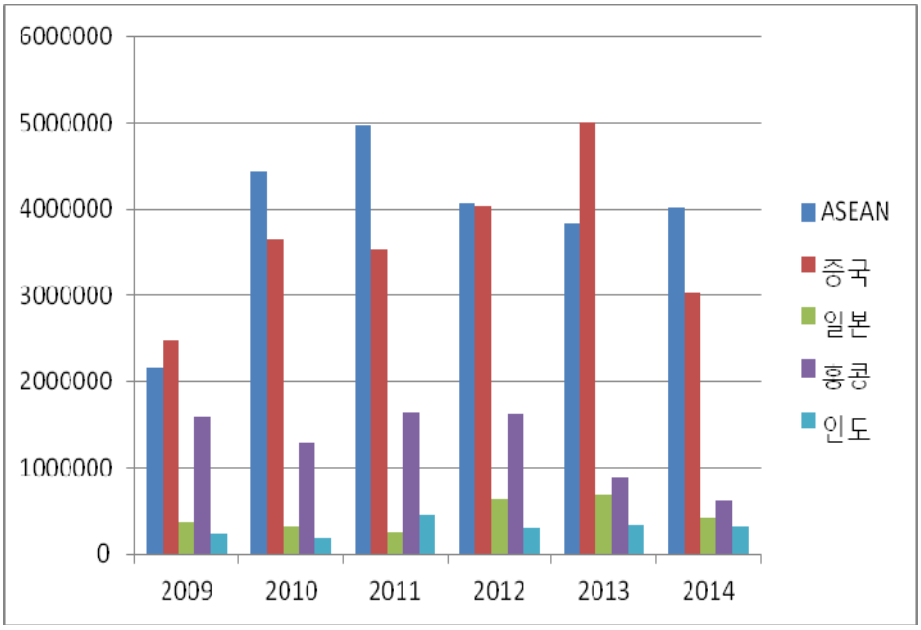
1.2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진출 현황

아세안은 해외직접투자 금액에 대해 2013 년, 2014 년 계속 중국을 넘어섰다. 2014 년에는 싱카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들어 간 해외직접 투자 금액이 약 128 조를 차지하며 약 120 조를 얻은 중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생산 비용 및 인건비가 증가되며 투자자는 더 낮은 비용을 갖는 시장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세안은 바로 대체될만한 시장이 되고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흐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아세안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2010 년에 개최한 한국-아세안 정상 회의를 통하여 양쪽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관계로 확대하였다. 이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흐름이 아세안에 집중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2009 년에 1 조 4 천억원을 투자하였고 2010 년에는

두배이상인 3 조 8 천억원을 투자한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0 년에 아세안의 투자국 중 4 위를 차지하였다. 아래 참고된 그림과 같다.

< 그림 1 > 2009 년~2014 년, 한국의 대아시아에 투자 금액 비교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자료 분석

2.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 현황

2.1 한국과 베트남 교역 관계

1980 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 정부가 사회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과감하게 자본주의 기반 정책으로 고쳐나간다. 특히 1986 년에는 베트남 공산당 제 6 차 대회에서 도이 머이(Đổi mới. 쇄신) 슬로건이 제기되었다. 주로 경제(가격 안정, 국제분업형 산업구조, 생산성의 향상), 금융 면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목표로 여러나라와 교역 관계를 맺기를 시작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관계를 맺었고 1975 년에서 1982 년까지 간접투자를 통해 개인 사업 교류가 있었으며 1983 년부터 직접투자를 하였지만 국교 수교는 없었다. 1992 년 4 월 2 일 한국과 베트남은 연락대표부의 상호개설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1992 년 8 월 17 일 (주) 베트남 연락대표부 공식업무가 개시되었으며, 1992 년 12 월 22 일에 외교 관계가 (재)수립되었다. 현재 하노이에 한국의 주베트남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호찌민시에는 총영사관이 설치되어있다. 2001 년 8 월 22 일~25 일에 베트남 쩐득르엉(Tran Duc Luong) 주석이 한국에 귀빈 방문한 기간동안 한국 대통령 김대중과 만나 '21 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식성명을 논의하며 발표하였다. 2009 년 10 월에는 이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2015 년 5 월 5 일에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적으로 체결하였다. 많은 수출입 세관에 관한 혜택을 제시하며 양국의 투자 협력 미래을 더 넓게 만들고 있다. 동시에 이는 양국 정치.경제.무역 관계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찍으며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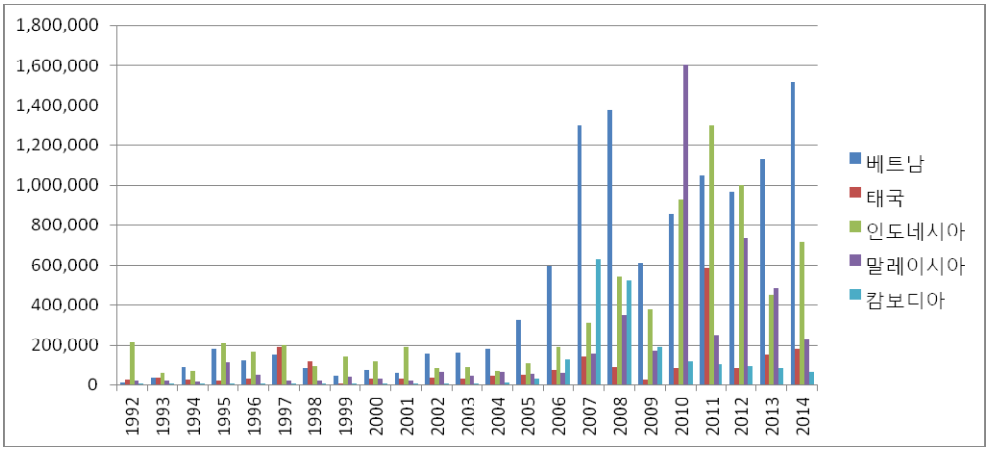
2.2아세안에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진출 현황

UN 통계에 따르면 2013 년과 2014 년에 베트남은 아시아 중에 세계의 투자 관심을 제일 많이 받은 10 국가중 9 위를 차지하였다. 제조업, 부동산 및 관광업은 베트남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을 제일 많이 받는 업종이다. 2014 년에 베트남 정부는 Samsung Display. Samsung Electronics 공장 투자 확대, 섬유 일신 공장. 호찌민 Hi-tech Park Samsung Electronics 공장, 베트남-한국 기술과학 연구원 설립 등에 관한 계획에 결재했고 베트남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국중 중국, 인도 에 이어 제 3 위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력 협력 동반자, 또한 포화해진 중국 시장에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여긴다. 베트남의 안정적 정치, 저렴한 생산 비용, 풍부한 노동력 및 자원, 외국 기업 제도 및 AFTA, AKFTA 활용 등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2012 년까지 한국은 베트남에 투자국 중에 2 위를 차지하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숫자로는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베트남은 한국의 투자 시장 중에 3 위를 차지하며 미국과 중국 뒤에 있다. 2015 년 1 월까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한 15 개 국가중에 한국은 2 위를 차지하였고 총 투자 금액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FDI 기업은 베트남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5 십만명의 노동력을 채용하고 2013 년 베트남 수출액의 25%를 차지하였다. 한국 대기업의 프로젝트 비율이 5%밖에 안 되지만 투자금액의 70%를 차지하며 제조업, 광업, 부동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 두산, LG, Posco, CJ, 효성 등 한국 대기업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안정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

< 그림 2 > 한국의 대아세안에 해외직접투자 금액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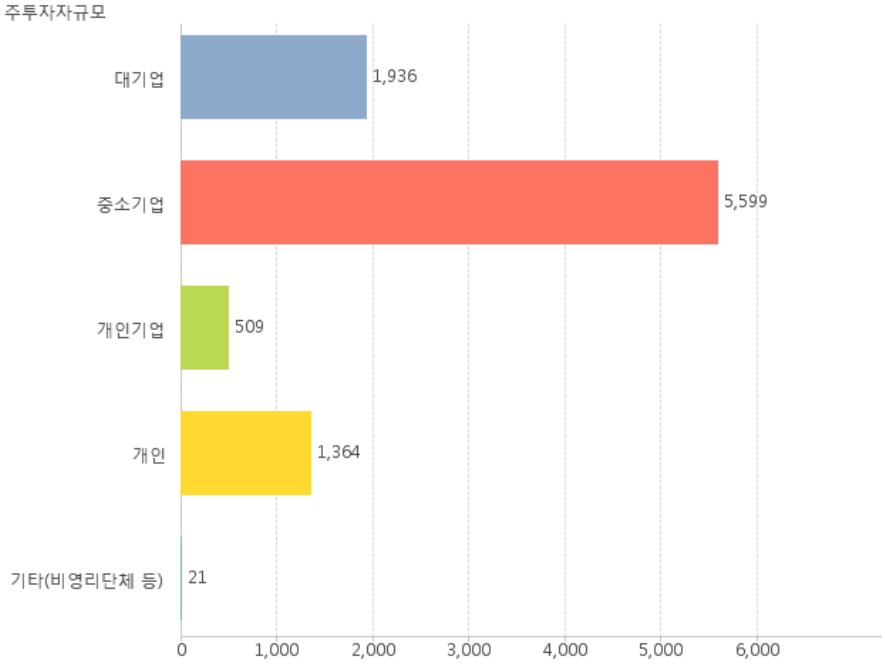
위에 그림에 따르면 2001 년까지는 베트남은 한국에게 새로운 투자 시장인 것 같다. 한국의 베트남에 투자금액은 적고 인도네시아, 태국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2002 년부터 한국기업은 베트남에 관심을 점점 끌고 투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2002 년의 투자금액은 2001 년보다 거의 3 배 더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2002 년부터 베트남은 한국의 투자유치국 중에 지속적으로 1 위를 차지하여 투자금액은 다른 나라보다 거의 2, 3 배 정도 높다. 이는 한국은 아세안에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 년에서 2012 년까지 베트남은 1 위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넘기며 2013 년에 들어가서 다시 등장하며 투자금액을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많이 얻다. 한국은 나중에 아세안 국가

중에 베트남에 전략적으로 투자 집중할 경향이 있다고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다

제 3 장. 베트남에서의 한국기업 진출 현황

1. 투자 규모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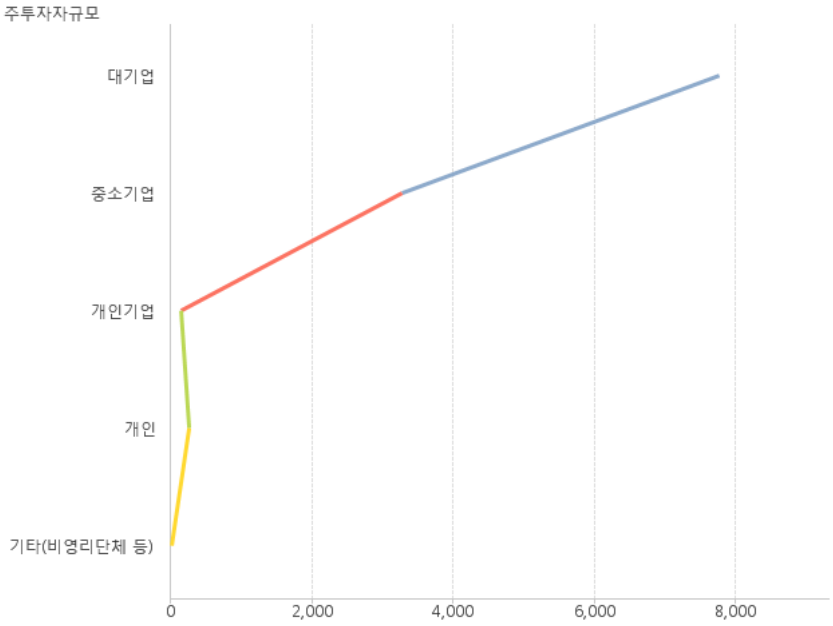
< 그림 3 > 2015 까지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한국기업 신고건수



출저: 한국 수출입 은행 자료 분석

통계 자료에 따라 1992 년부터 현재까지는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총 한국기업이 약 9500 여개 있다. 그 중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총 기업의 약 60%를 차지하여 21%만 차지하는 대기업보다 3 배 더 많다. 그런데 총 투자 금액으로 통계하면 또 다음과 같은 다른 결과가 나온다.

< 그림 4 > 2015 년까지 투자 규모별 한국의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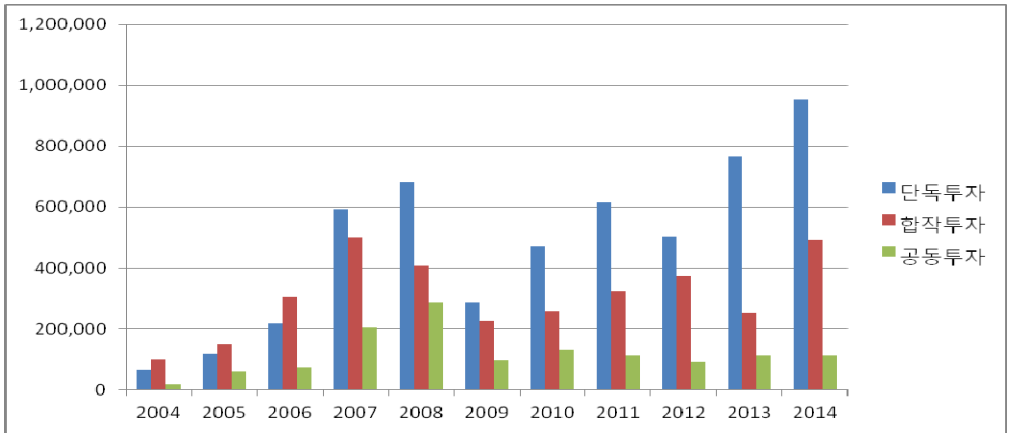


출저: 한국 수출입 은행 자료 분석

2015 년까지 한국 수출입 은행의 통계에 따라 아세안권에서는 베트남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 금액은 110 억 달러이며 다음 2 위, 3 위는 인도네시아가 7 십억 달러 이며 싱카로포르는 6 십억 달러를 투자금액으로 받고 있다. 한국의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70%가 대기업의 투자금액이다. 다음에 중소기업이 총 투자금액의 21%로 차지한다. 이 결과는 진출한 기업 수와는 완전 다른 것이다.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대기업 수가 중소기업보다 적은데 투자 금액이 활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는 중소기업의 수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투자 금액은 적다는 것이다.

투자 형태는 현재까지 단독투자가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추구하는 투자형태로 볼 수 있다.

< 그림 5 > 베트남에 한국의 투자 형태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자료 분석

한국 수출입 은행 자료로 분석된 위 그림에 따라 2004 년까지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합작투자 형태로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단독투자와 비교하면 합작투자는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2007 년부터 단독투자 금액은 합작 투자를 추월하여 현재까지 1 위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 투자 업종

2.1 1992 년 ~ 2001 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업종

1992 년 12 월 22 일에 베트남과 한국은 대사 외교관계를 설립하기 위하여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일 하노이에 한국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1993 년 11 월 19 일에 호찌민에 한국 총영사관이 개설되었다.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맺은 후에 양국의 외교장관, 주석, 공산당 서기장 등 서로 국빈방문을 많이 진행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교역, 경제에 관한 많은 협정들이 체결되었다. 기술과학경영협력 협정(1993/2), 항공 협정. 무역 협정(1993/5), 문화 협정(1994/8), 운송협정(1995/4), 세관 협정(1995/3) 등이 있다[7]. 그런데 양국 정부의 협력 진출 노력에 비해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이 기간에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베트남 시장을 조사하며 모색하고 있던 시기였다.

[7] 대베트남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http://vnm-hanoi.mofa.go.kr/)

< 표 1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업종 5 (1992 년~2001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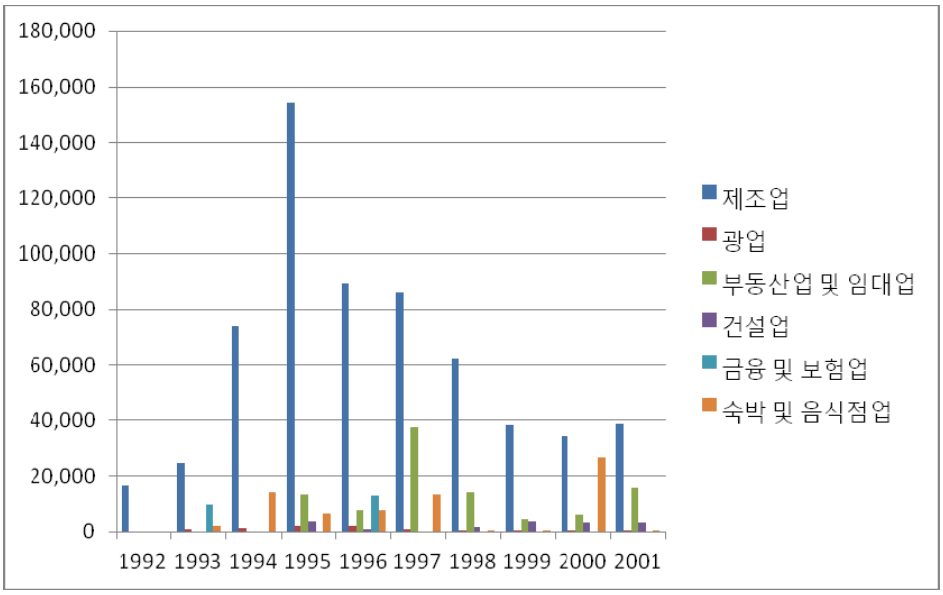
	1992	1993	1994	1995	1996
1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2	광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3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4	숙박 및 음식점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		농임어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1997	**1998**	**1999**	**2000**	**2001**
1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2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부동산업	건설업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5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농임어업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 분석

1992 년에서 2001 년까지 한국 수출입은행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저렴한 인건비 와 생산 비용, 풍보한 노동력 같은 장점을 활용하여 다른 아세안 국가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우선 투자하는 업종이다. 이후 매년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새로운 업종이 생기며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하는 업종의 순위를 바뀌고 있다. 이는 한국이 베트남시장에 투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도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투자하는 주로 업종을 몇가지 들 수 있다.

< 그림 6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경향(1992 년~2001 년)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 분석

대체적으로 1992 년에서 2001 년까지는 한국의 베트남에 투자는 제조업,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세가지 업종에 집중하였다. 제조업에 투자금액은 1992 년에서 1995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후에는 점점 축소되었다. 부동산업 투자는 1995 년 나타나며 1997 년까지 계속 증가되어 후에 점점 감소되었다. 이후 2001 년에 다시 증가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투자업종 중에 3 위를 차지하며 1995~1997 에 증가하였다가 2000 년 다시 나타났다.

2.2 2002 년 ~ 2014 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업종

2001 년 8 월 22 일부터 25 일까지 베트남 쩐득르엉(Tran Duc Luong)주석이 한국에 귀빈방문을 와서 한국 대통령 김대중과 만나며 양국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진출하기 위하여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한국 관계는 '21 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확정되었다. 2009 년 10 월에 이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확대되었다. 양국 정부가 협력 관계를 증강하는 노력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시장 조사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베트남 시장에 많은 투자와 더불어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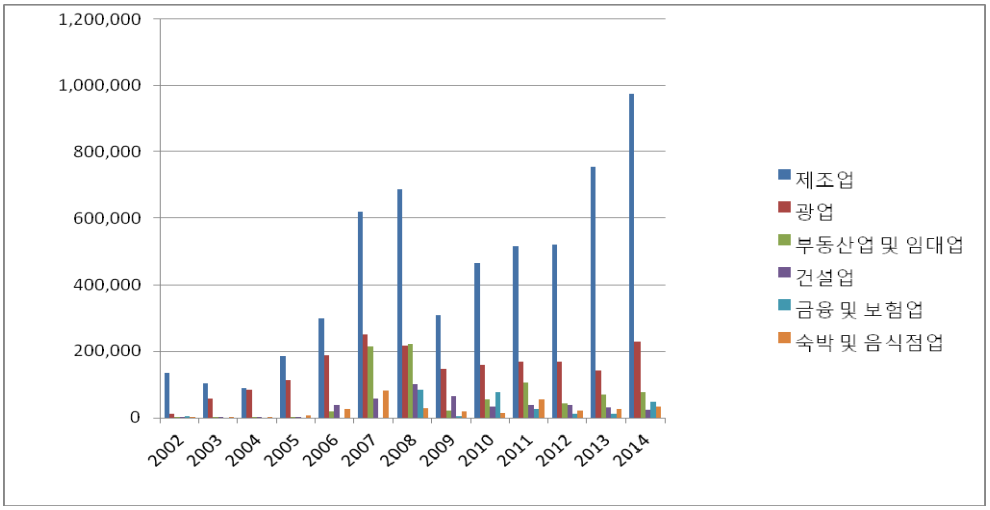
< 표 2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업종 5 위(2002 년~2014 년)

	2002	2003	2004	2005	2006
1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2	광업	광업	광업	광업	광업
3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4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설업	부동산업
	2007	**2008**	**2009**	**2010**	**2011**
1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2	광업	부동산업	광업	광업	광업
3	부동산업	광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4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
5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12	**2013**	**2014**		
1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2	광업	광업	광업		
3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4	부동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5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 분석

한국의 베트남에 주로 투자하는 5 위 업종에 관한 통계 분석은 제조업이 여전히 한국의 대베트남에 주력 투자업종이다. 반도체 사업에 필요한 광업 분야가 새롭게 나타나며 순위가 급증하고 투자업종 중에 2 위를 차지한다. 광업의 순위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투자 업종이 나타난 비율이 1992~2001 년 기간보다 낮다. 제조업, 광업, 부도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집중한다. 이 표는 베트남에 투자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 그림 7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경향(2002 년~2014 년)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 분석

그래프에 따르면 2002 년에서 2014 년까지의 한국의 투자 업종은 새로운 변화없이 일정한 업종들에만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 투자 많이 하는 업종이 제조업, 광업,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있다.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업종이다.

제조업에 투자 금액은 2002 년에서 2008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009 년에 감소하다가 2014 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광업에 2002 년~2007 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이후 축소하여 2009 년~2011 년에 다시 증가한다. 2012 년하고 2013 년에는 광업 투자 금액이 감소하였다가 2014 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및 광업이 지속적으로 한국의 대베트남에 투자하는 업종 중에 1 위 및 2 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투자하는 세번째 업종이 부동산업이다. 2007 년과 2008 년에 부동산 투자금액이 제일 높았고 지금까지 점점 절감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건설업이 한국투자자에게 관심을 끄는 업종이며 2006 년~2008 년에 주로 투자를 받았다. 그런데 현재까지 감소하는 방향이 있다. 이어서 금용, 보험업 및 숙박, 음식점업이 4 위와 5 위를 차지하는데 투자금액이 낮은 편이고 2007 년부터 감소한다.

제 4 장. pull 요인에 대한 분석

1. 가설 1 검증: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베트남의 유리한 조건

필자는 기디&영의 투자국의 경쟁 기업, 하청기업의 진출 및 베트남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의 세가지 요인을 검증하면서 다른 아세안 국가과 비교하며 베트남의 유리한 조건을 분석하여 베트남의 pull 요인을 판단하고자 한다.

1.1 경쟁 기업과 하청 기업의 진출 현황

1.1.1 경쟁 기업 진출

기디&영은 투자유치국이 투자를 끄는 6 가지 요인을 내놓고 그 중에는 두번째 및 세번째 요인으로 경쟁기업과 하청기업을 언급하였다. 투자국의 기존의 경쟁기업과 하청기업 가운데 인건비상승등의 요인으로 하청기업이 투자유치국에 먼저 진출하는 현상으로 인해 투자국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베트남이 이런 pull 요인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 표 3 >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주요 한국대기업의 진출 시간

No	상호	현지법인영	업종	주요취급 품목	신고일자
1	**삼성물산**	**Samsung Corporation, Hanoi Office**	**무역업**	**철강,화학,정보통신 프로젝트 등 종합무역**	**1989**
2	**삼성물산**	**Samsung Corporation Hochiminh**	**건설업**	**Trading**	**1991**
3	대우자동차㈜	Vietnam Daewoo Motor Company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1993
4	대우건설	Daewoo Engineering Co.,LTD	건설업	건설시공	1993
5	POSCO 건설	Posco E&C	건설업	건설	1993
6	대우	Daewoo-Dongnai Garment Company LTD	제조업	셔츠 및 자켓	1993.02.05
7	대우전자㈜	Daewoo Electronics Vietnam co., LTD	제조업	냉장고	1993.05.14
8	LG 상사	VINA GSC	제조업	광섬유, 통신 케이블	1993.09.25
9	POSCO	VSC-POSCO Corporation	제조업	선재,철근제조	1994
10	Sony	Sony Vietnam	제조업	TV, 노트북, 휴태폰	1994
11	Ford	Ford Vietnam LTD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1995
12	대우	Daewoo-Hanul Corporation	부동산 및 서비스업	부동산분양공급업	1995.12.29
13	**삼성전자**	**Samsung Vina Electronics Co., LTD (Hochiminh 공장)**	**제조업**	**컬러 TV 및 부품**	**1995.01.26**
14	LG 상사	LG Vina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제조업	소재	1995.06.15
15	LG 전자	LG SEL Electronics Vietnam LTD	제조업	C-TV 및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1995.07.05
16	TOSHIBA	Toshiba Electronics Vietnam	제조업	TV 및 부품	1996
17	현대강관	Hyundai – Huy Hoang Pipe Co., LTD	제조업	강관	1996.03.22

18	현대건설㈜	Hyundai Vinashin Shipyard Co., LTD	제조업	선박건조, 수리/개조	1996.6.11
19	현대중공업㈜	Hyundai – Donganh Steel Tower Manufacturing Co	제조업	철탑류	1996.02.10
20	효성물산	Hyosung Vina Co., LTD	제조업	Polyester 직물	1996.10.31
21	엘지건설㈜	LG-HP Sun Flower International Village Corp	부동산 및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1997.01.21
22	엘지금속	LG-Terraprodex Joint Venture Company	제조업	펌프	1997.06.16
23	엘지상사	LG Vina Industrial Systems Co., LTD	제조업	배전반, MCC& RELAY PANEL	1997.06.24
24	엘지상사	LG-Terraprodex Joint Venture Company	제조업	희토, 중정석,형석정	1997.06.16
25	LG 전자	LG-Meca Electronics Haiphong INC	제조업	전기 및 엔진펌프	1997.04.09
26	LG 화학	LG Vina Cosmetics Jonit Venture Company Limited	제조업	화장품	1998.02.19
27	LG 전선	LG-Vina Cable LTD	제조업	중저압 전력선	1998.12.18
28	금호물산	Kumho Trading	제조업	화분,도자기	2001
29	**삼성화재**	**Samsung Vina Insurance Company**	**금융업**	**보험**	**2002**
30	INTEL	Intel 의 첫 공장	제조업	Computer Chip	2006
31	SONY	Sony Electronics Vietnam	무역업	전자 수입	2008
32	**삼성전자**	**Samsung Vina (Bacninh 공장)**	**제조업**	**휴대폰, 타블렛 및 부품**	**2009**
33	Posco	Posco SS Vina	제조업	철근제조	2012
34	**삼성전자**	**Samsung Vina (Thainguyen 공장)**	**제조업**	**전자 설비 및 부품**	**2014**
35	**LG 전자**	**LG Electronic Vietnam (Haiphong 공장)**	**제조업**	**전자 설비 및 부품**	**2015.03.27**

출저: KOTRA 자료 분석

필자는 베트남의 pull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 및 한국의 경쟁기업의 베트남에 투자 진출 기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한국 대기업이 베트남에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 1993 년에는 자동차 및 부품, 냉장고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함으로 대우기업은 베트남 제조업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선도자였다. 이어서 Posco 가 등장하여 철근 제조 공장을 설립하였다. 1995 년에는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TV 및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첫 공장을 세웠다. 같은 해에 LG 도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였다. 1997 년이 LG 가 베트남에 집중적으로 진출한 연도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여러 품목에 투자를 증대시켰다. 현대기업은 1996 년에 베트남에 등장하여 선박 제조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1994 년과 1996 년에는 전기, 전자 부분에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 대기업 Sony, Toshiba 가 TV, 노트북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 증대시키는 현상을 분석함에 주목해야 할 점이다. 한국 경쟁기업의 제조업에 투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하면서 삼성이 2009 년과 2014 년에 베트남에 2 개 공장을 세웠다. 최근 2015 년 5 월에 삼성이 SUHD TV, Smart TV, LED TV 등 고급적인 텔레비전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이 공장이 2016 년에 완료하고 생산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삼성의 최근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베트남의 제일 많은 투자 금액을 갖는 해외 프로젝트이다. 2006 년 Intel 의 투자금액 1 위를 빼앗았다. 전자 생산 부분에 삼성의 경쟁자인 LG 는 2015 년 3 월에 텔레비전, 스마트폰, 냉장고, 자동차의

디지털 부품 등 하이테크 물건을 생산하며 조립하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였다.

한국의 대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간격이 약 1~2 년이 된다. 단지 한국기업들이 짧은 간격으로 베트남에 진출한다고 베트남이 경쟁기업 진출에 관한 pull 요인을 소유한다고 평가를 낼 수 없다. 그런데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 규모를 확대함을 보면 베트남이 이런 요인을 갖지 않았다고 부정할 수 없다. 2000 년이전에 대부분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 LG, 현대, 대우, Posco 등이 베트남에 진출하였다. 베트남 시장에 비슷한 시기에 진출한 것은 물론 한국기업들이 서로 베트남의 경쟁구조와 경쟁유형을 파악하고 투자 확대를 강력하게 진행하였다. 이와같이 한국의 대기업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많은 새로운 공장을 세움을 통해서 기디&영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첫번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비슷한 시기에 진출하는 것은 베트남 시장이 투자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1.2 하청기업 진출

베트남에서 삼성의 생산에 관한 하청기업 리스트이를 바탕으로 자기 회사와 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이미 진출한 외국시장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함으로써 안정된 시장을 확보한다는 기디&영 이론에 따라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 동기를 검증하고자 한다. 현재 삼성의 베트남-호찌민에 설립한 공장에게 생산을 보조하기 위해 삼성이 약 70 하청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품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하청기업이 약 35 개 있고 50%를 차지하여 배송 및 통관에 관한 기업이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재정.상담에 관한 기업이다. 부품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하청기업 중에는 다만 3 기업이 삼성이 진출하기 이전에 베트남에 진출하였고 3%를 달하며 남은 기업이 삼성이 들어간 후에 설립되었다. 이후에 베트남에 설립된 삼성의 두 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두 공장의 하청기업 전부 삼성이 진출한 후에 베트남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는것이 베트남에 미리 존재하는 하청기업을 바탕으로 결정되지 않다는 의미가 있으며 베트남이 기디&영 이론으로 하청기업과 관계에 관한 pull 요인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을 검증한다.

1.2지리적 위상 및 국제협력관계

1.2.1 지리적 위상

베트남의 지형은 S 자 모양이며 해안선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다. 동쪽이 동해와 접하며 남쪽은 태국베이와 근접한다. 해안선이 약 3260 킬로미터로 많이 길어 동해와 근접하는 도시와 항만의 위치는 베트남에게 매우 중요하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베트남의 동해는 세계적으로 인도양과 태평양 간의 무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베트남의 남쪽 바다는 해협을 통해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한다. 현재 세계 무역의 제일 큰 10 개의 해로 중에 베트남의 동해를 지나가거나 연결되는 해로는 5 개가 있다. WTO 의 2013 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의 무역 운송 중에 90%가 해로를 이용하며 그중 45%가 베트남의 동해를 지나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바다 및 해안이 단순히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것 뿐만아니라 유럽과 중국, 일본, 한국등 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바다이다.

베트남의 동해는 이와같이 유럽등 서구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적 협력 및 교류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해안 지역들은 큰 도시로 발전하였고 좋은 인프라와 경제적 중심역할을 하며 도로 및 해로 그리고 철도 등 교통 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북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태국베이와 근접해서 베트남의 항구를 통하여 중국과 태국에 물건들을 운송하거나 수출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의 물류통로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북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태국베이와 근접해서 베트남의 항구를 통하여 중국과 태국에 물건들을 운송하거나 수출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의 물류통로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가운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아시아 정세에 있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베트남은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하고 싶은 외국 또한 한국기업의 좋은 투자 시장이 되고 있다.

1.2.2 국제협력관계

근대에 들어 세계화, 국제경제통합 및 무역자유화는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흐름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흐름은 베트남을 변화시켰다. 1986 년부터 베트남은 '대외관계. 국제관계, 대외정책 다양화, 다방화 실현, 국제경제통합 노력 및 다양한 분야에 세계협력관계 확대' 라는 슬로건으로 베트남 경제를 혁신하며 나라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현재까지 베트남이 세계적으로 170 개 국가와 대외관계를 맺었다. 그 중에는 러시아(2001), 일본(2006), 인도(2007), 중국(2008), 한국.스페인(2009),

영국(2010), 독일(2011), 이탈리아(2013) 등 10 개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루었다. 베트남은 프랑스, 미국,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이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1995 년 7 월에 아세안에 1998 년에는 APEC, 2007 년 1 월에 WTO 에 가입한 것을 통해서 베트남은 세계 경제에 협려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베트남이 아세안의 자유뮤역협정(FTA) 채결 및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6 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 2002 년에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2003 년 아세안-일본 전면적 경제 동반자 협정(AJCEP), 2006 년 아세안-한국 상품협정 (AKTIG)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으로써 첫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8 년에 베트남-일본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다음에 2011 년 칠레, 최근에 2015 년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무역 측면에서는 현재 중국, EU, 미국, 한국, 일본, 동남 아시아 등에 쌀, 섬유, 신발, 석탄, 원유, 고무를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싱카포르의 기계, 부품, 전자를 주로 수입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베트남은 미국, 유럽, 중국, 대만, 일본 같은 강대국의 투자시장 중에 하나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와 좋은 신뢰를 얻으며 굳건한 경제협력, 대외관계 및 배려하는 수출입 통관 등 장점을 갖고 있는 베트남에 투자를 한다면 전세계에 각 나라의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좋은 발판으로 여길 수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베트남에서 공장을 세우고 적당한 생산비용으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하면 기업들이 기본 경제협력, 수출입 계통덕분에 복잡한 세관 절차 같은 걸림돌을 쉽게 넘어가서 제 3 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베트남이 여러 국가의 좋은 투자 시장이며 이는 능동적 투자 환경과 개선된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 요소에 따르면 한국 역시 베트남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국가이며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하여 제 3 국에 수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1.3 한국기업 투자목적와 베트남정부의 알맞은 지원정책

1.3.1 투자형태 지원

한국 경제가 세계 시장에 위세를 떨치는 것은 삼성, LG, 두산, 금호, 효성 등과 같은 제조 및 건설에 관한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대기업들이 적당한 생산비용을 공급하는 시장을 찾고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전세계 많은 국가에 현지 공장 및 빌딩,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투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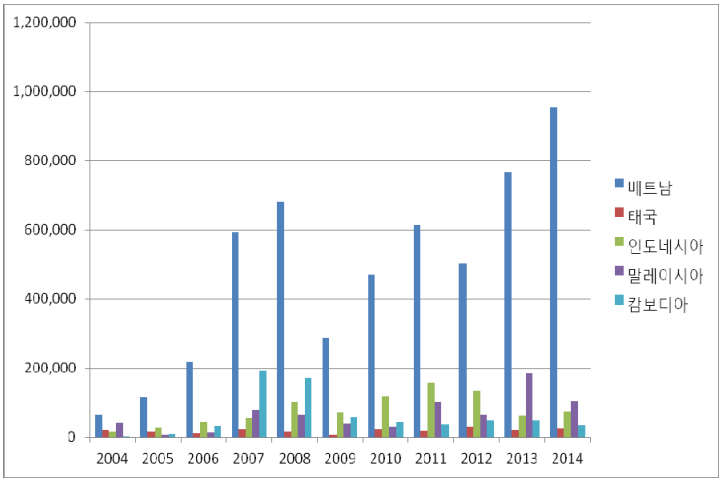
해외직접투자에는 단독투자, 공동투자, 합작투자등 세가지를 들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제일 관심을 보여주는 투자 형태는 단독투자이다. 단독 투자는 기업이 자금을 100%로 지불하여 모든 사업 활동 및 투자 이익을 투자 기업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며 관리하기에 도움이 되고 특히 제조업에 관한 기업에서 선호하는 투자 형태이다.

한국 기업이 추구하는 투자 형태의 변화는 베트남 정부 및 시장에서의 투자 조건을 변화하게 만들었다. 제 3 장의 한국의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형태 분석에 따라 2004 년까지는 한국에서 베트남에 주로 투자 하는 형태는

합작투자이며 베트남 공기업 또는 사기업과 합작경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이 위험부담 없이 투자 업종을 모색할 수 있게 하였고 베트남기업과 합작경영으로 사업을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 2005 년부터는 베트남의 투자시장을 잘 이해하여서 투자 업종을 고려한 후에는 한국기업들이 단독투자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런 투자형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6 년 7 월 1 일부터 베트남은 해외투자법을 기업법 및 투자법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자 개념은 해외투자자와 국내투자자를 포함하여 해외투자자에게 투자 형태는 확대되었다. 베트남에 해외직접 및 간접투자에 관한 조항은 기업법과 투자법의 특별한 항목에 언급되는데 해외투자자들이 국내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전에 못 한 투자 형태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전에 국내투자자만 실행 할 수 있는 단독투자를 들 수 있다. 이런 개정은 우연히 한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투자 형태인 단독투자를 고려함에 기여하였다.

아세안의 다른 국가과 비하면 베트남은 한국의 단독투자 형태에 대해 1 위를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단독투자는 한국기업의 추구하는 투자형태이며 베트남은 이런 한국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는 시장인 것 같다.

< 그림 8 > 한국의 아세안에 단독투자 금액 비교



출처: 한국 수출입 은행 통계자료 분석

1.3.2 지역의 독립적으로 경제 개발 및 투자 유입 정책

1960 년, 1970 년대에는 지역경제개발 개념이 나타나며 점점 확대하였다. 왜냐하면 지역 정부는 지역의 경제를 능동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런데 이 시대의 대부분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전략적 계획은 정부가 지역에게 투자하며 지역이 시민들에게 직업을 만들기 위하여 경제 개발하고 정부에 납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투자 활동은 정부를 통해서 진행되며 정부가 관리한 것이고 지역 정부는 주로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은 모든 지역에게 맞을 수 없다. 또한 특별한 지역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게 되면 지역경제발전의 잠재력을 발휘 할수가 없다. 그래서 1980 년대, 1990 년대에 들어가서 지역경제개발 개념은 지역이 투자를 독립적으로 끌고 경제를 개발하며 정부가 인프라 개선 및 관리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베트남의 지역경제개발 정책은 지역마다 자기의 잠재력을 끌어 올리며 경제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 유치를 위하여 인프라에 개선하는 노력을 만들었다. 큰 투자 프로젝트를 앞두고 지역 정부마다 프로젝트를 얻기 위하여 중앙 정부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여 투자를 이끌어 내고 동시에 이런 정책은 지역의 경쟁력을 촉진하면서 투자자가 고려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을 제공하여 다양한 투자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제조업, 광업 투자자는 적당한 생산 비용을 공급하는 시장을 늘 선호하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특히 세금, 토지에 관한 정책이 상품의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 대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이들은 베트남의 전 지역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 LG 가 Thai Nguyen, Bac Ninh, Hai Phong 등 같은 북쪽지방에 투자하고 있고 두산은 Da Nang, Quang Nam 중부지방에 주로 투자하고 효성은 Binh Duong, Dong Nai 등 남부지방에 투자 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각 지역이 자기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쟁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결정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베트남의 각 지역 정부에서는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에게 자기 지역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투자촉진세미나, 한국기업 지원 사무실, 한국사업자 동아리 설립 등 한국에서 많은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2014 년 2 월에 중부지방 Quang Nam 성은 베트남 정부에게 한국 투자자에게만 산업, 도시, 서비스 구역을 설립하는 제안을 제출하였고 통과되었다. 이는 지역정부에서 한국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한국 정부 또는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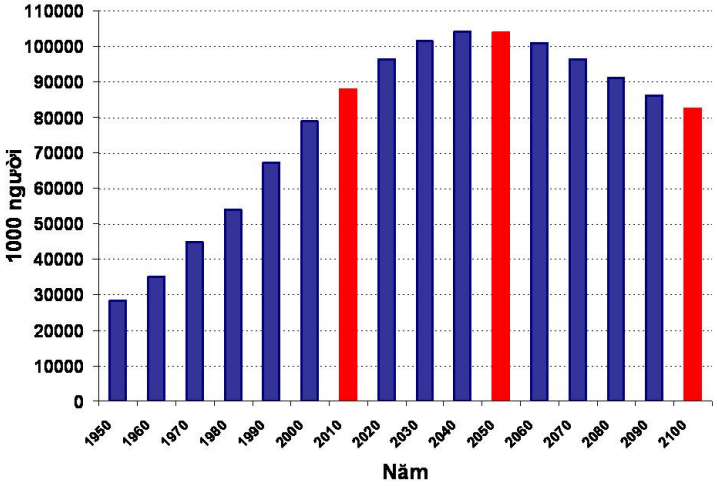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은 현재 베트남의 최고 투자 국가이다. 그런데 두 국가는 투자 방식이 차이점이 있다. 일본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전에 베트남 정부랑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우선 협상한다. 투자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개선하여야 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한다. 반면에 한국 투자자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에 정책을 자문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현재의 환경에서 기회 및 이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이 지역정부에 투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지역 정부와 돈독한 협력관계를 만든다. 한국 투자자들이 자기 투자 프로젝트에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의도를 갖는 지역들을 우선 검토하여 선택한 후에 이런 지역 정부와 직접 만나고 투자에 대해 협상한다. 이는 토지의 112 헥타르를 무료 지원받고 4 년동안 면세 혜택을 받은 삼성이 Bac Ninh 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던 요인 중의 하나이다.

독립적인 지역경제개발 정책은 해외투자를 유치하여야 자기 지역의 경제 개발을 할수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 제일 좋은 혜택을 지원하고 인프라 개선 및 도로, 공장 건설 투자에 대해 지역간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런 지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는 투자자에게 생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가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기업들이 베트남 제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가 있다.

1.4노동력 이점

베트남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인구통계부에 따라 베트남 인구는 2040 년까지 계속 증가하며 이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는 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풍부한 노동력을 나타낸다.

< 그림 9 > 베트남 인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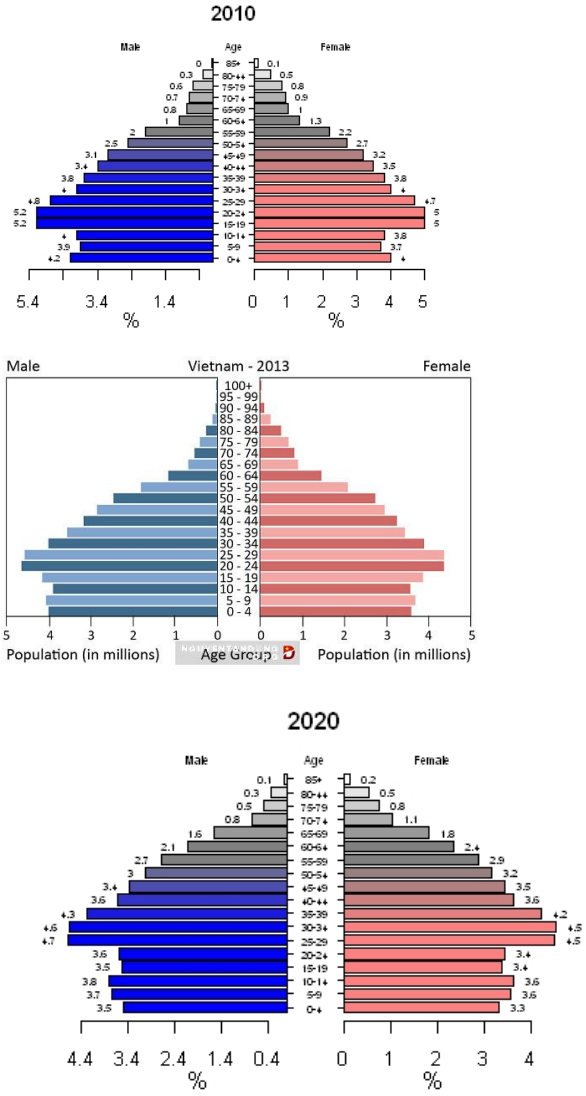


출처: 베트남 인구통계부

베트남의 2010 년, 2013 년 및 2020 년 인구표를 보면 노동 연령의 인구가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의 노동력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베트남 인구통계부에 따라 베트남의 인구는 2007 년에 황금시기에 있으며 이런 황금인구구조는 약 30~35 년에 유지할 수 있다. 황금인구구조는 최소 노동연령의 2 명이 의존연령의 1 명을 키운다는 뜻이다. 즉 우리 사회는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노인 및 어린이 지원에 도움이 되고 사회의 부담을 줄인다. 제일 중요하는 것은 경제 개발에 공급할 수 있는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풍부한 노동력이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10> 2010,2013,2020 년 베트남 인구탑



출처: 베트남인구통계부

인력, 노동력은 제조업에서 제일 필요한 요소이다. 상품을 생산하는것은 노동력외엔 다른 대안이 그다지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어서 제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CNN 의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 평균 임금은 아세안의 각국과의 비교에서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에 이어 6 번째였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이점과 함께 베트남은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다른 동남아시 국가보다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동시에 베트남의 노동력은 좋은 질을 갖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구의 학력수준이 증가함으로 표현된다. 베트남의 인구통계부 조사결과에 따라 2014 년 15 세 이상 문해 인구는 94.7%가 되며 이 비율이 2013 년보다 4.2%로 증가하였다. 학교에 아직 못 간 5 세 이상 인구는 4.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학력수준이 변화를 보여준다. 초졸을 갖는 최고 학력 수준의 비율이 2009 년에 비하면 1.9%로 축소한 반면에 고졸을 갖는 최고 학력 수준의 비율이 2014 년 26.5%로 차지하며 2009 년보다 2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수준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기술적 전문에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조사 결과는 기술적 전문 증명서를 취급받는 15 세 이상 인구는 2014 년에 18.5%로 차지하며 2009 녀보다 13.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제일 주목하는 것은 초금 증명서를 취급 받는 비율이 축소하여 기술적 중고급 증명서를 받는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대졸 및 대학원 인구의 비율이 2009 년 4.4%부터 2014 년 7.3%를 5 년동안 2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의 숫자는 베트남의 교육을 받는 노동력이 점점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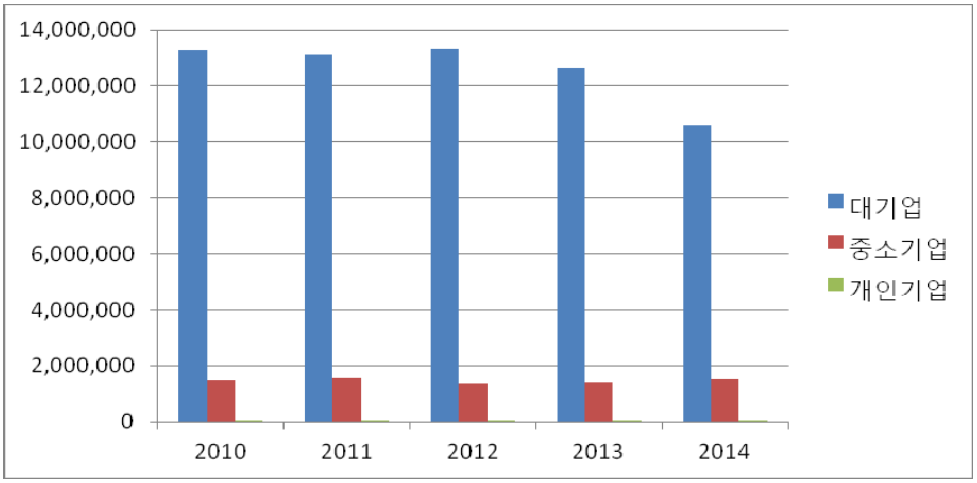
2013 년 KOTRA 는 베트남에 최고 타자자인 삼성과 LG 의 베트남 노동력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베트남의 장점은 역시 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다. 베트남의 월급은 최저 90 달러 선으로, 중국의 3 분의 1 수준이다. 인구도 9000 만 명에 달하고 그중 30 세 이하 젊은 층이 50%여서 노동력도 풍부하다. 유교적인 사상이 배여 있어 근면함과 성실함 등 노동력의 질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 2 검증: 베트남 정부에서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한국의 일본식 해외직접투자를 받고자 한다

2.1투자 규모 및 세밀 업종 통한 검증

제 3 장의 한국기업의 투자 규모 및 투자 금액 자료에 따라 베트남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수량이 대기업보다 3 배가 많는데 총 투자 금액의 70%가 대기업에 소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의 베트남에 투자 비중이 제일 높다는 것이다. 그 중에 한국기업의 여러 투자형태중에 유독 한국 대기업들이 단독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아래 그림은 2010~2014 년 5 년동안 한국 대기업들이 단독투자 방식으로 투자 금액의 1 위를 계속 차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 그림 11 > 투자규모별 한국의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단독투자 금액 비교



출저: 한국 수출입 은행 자료 분석

단독투자는 외국투자자가 자본, 사업 및 이윤 관리에 대해 자주적인 투자 형태다. 이는 시장에 자기 독점을 발휘하기 위하여 대기업 및 다국적 대기업이 추구하는 해외직접투자 형태다. 또한 고미자 이론에 따라 일본형 해외직접투자 방식의 특성 중에 하나이다. 통계는 한국 대기업의 베트남에 투자 금액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여 단독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시장을 확대하면서 시장에 독점을 확정하는 미국형 해외직접투자를 반영한다.

투자 품목을 분석하면 미국형 해외직접투자는 자기의 강력 상품을 세계에 진출하기 위하여 선발 성장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은 투자유치국의 경제개발을 하거나 산업 수준 성장으로 인해 투자국의 상품의 부품을 생산하다든지에 대한 부분을 무시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고유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이나 특허등을 모두 다 보호하고

생산에만 집중하게끔 투자유치국의 저렴한 생산요소 즉, 노동력 및 정부정책만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미국형과 달리 일본형이 섬유, 의료 등 표준화된 산업에 투자 집중하여 이런 산업이 중급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 부분이고 차이점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이 생산측면에서 보조하도록 투자국에서 이전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약화된 투자국의 비교열위 산업이 투자유치국의 비교우위 산업으로 전환시키면서 양국의 고도화에 기여한다.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미국형이나 일본형으로 투자하는 유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자는 한국의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세부 품목을 분석하고자한다. 위에 제 3 장에는 한국의 베트남에 투자 업종을 분석하였고 제조업 및 광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결과 나타났는데 세부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 표 4 > 한국의 베트남에 5 위 투자폼목 (세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	**섬유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2	기타 제철 및 제강업	금융업	숙박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부동산업
3	기타 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부동산업	금융업	숙박업
4	**의복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부동산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의복업**	숙박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숙박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	전기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전기장비 제조업	광업
2	**섬유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업**	**의복업**
3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의복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건설업	건설업	**의복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광업	광업	광업	광업	광업	광업
2	**의복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의복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광업
3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업	**의복업**	제철업	제철업	전기장비 제조업	금융업
4	**의복업**	**섬유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금융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숙박업	1 치 금속 제조업(제철업)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섬유제품 제조업**	광업	광업	광업	광업	전자부품 제조업
2	소매업	부동산업	제철업	1 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광업
3	금융업	숙박업	소매업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4	부동산업	소매업	전자부품 제조업	부동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소매업
5	부동산업	1 차 금속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의복업**	**의복업**

출처: 한국 수출입 은행 자료 분석

위는 한국의 베트남에 투자금액에 따른 대베트남 한국의 상위 5 개의 투자 품목 정리한 통계이다. 1992 년~2006 년을 보면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섬유, 의복, 가죽 및 가방에 관한 제조업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한국기업들이 섬유, 의복 등 같은 한국에서는 비교열위가 되는 산업을 현지국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의 산업으로 변화하여 고지마의 거시적 관점에서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일본의 방식으로 베트남에 투자 한다고 볼 수 있다. 2003 년부터 광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또한 2007 년~2015 년, 한국기업들이 섬유, 의복 등과 같은 고지마에 따라 표준화된 산업에 투자를 줄여가며 광업, 전자부품 제조업, 1 차 금속 제조업 (제철업), 부동산업 및 숙박업에 투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국에 도움을 주는 산업이 아닌 광업, 부동산업 및 숙박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아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투자하는 방식이 양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키려는 일본형이 아닌 것 같다. 특히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의복업이 완전 쇠퇴함에 따라 구조상 선발 성장산업인 전자 설비 및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에게 자리를 넘겨준다. 이는 한국이 미국형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진출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2.2 베트남의 산업고도화 현황

해외 제조 기업들이 투자유치국 투자하면 동시에 투자유치국에 신규 기술을 가져온다. 투자유치국이 이런 기술을 잘 습득하고 내부화 하면 자기의 산업고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기술을 잘 이전 받고 산업고도화가 되는 제일 구체적인 표현이 투자유치국이 공장뿐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해외 제조 기업에게 원자재 및 부품을 공급해주는

보조 기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 자기 이전 된 기술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유치국의 보조기업의 개발을 분석함으로 산업고도화 진도를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기업으로서 한국의 투자 기업에게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베트남 국내 기업 비중을 분석하여 베트남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산업고도화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룬지 또한 이루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에 관한 산업은 한국이 베트남에 우선 투자하는 산업 부분이다. 1993 년에 대우가 첫번째 공장으로 자동차에 관한 공장을 베트남에 세운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 부분에 경쟁 기업인 Ford, Toyota 등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기업이 베트남에 일찍 진출하였다. 그런데 2007 년까지 통계 자료에 따라 이런 자동차 생산 기업의 부품중 약 10%를 베트남 국내 자동차 기업에 하청을 주어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90%의 부품은 생산 기업이 스스로 생산하거나 다른 외국에 수입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조립하는 대우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07 년에 460 억달로의 부품을 납품하는데 그 중에 베트남 국내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금액이 2 백 3 십만 달러 밖에 안 된다[8].

1992 년부터 2006 년까지 베트남에 진출할 때부터 섬유는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업종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2010 년 베트남 통계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한국 섬유 기업들이 원자재의 70~80%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 단추, 지퍼 등 생산할 수 있는 베트남

[8] http://www.hids.hochiminhcity.gov.vn/ (호찌민- 베트남 경제개발 연구소)

현지 국내 보조기업이 몇 군데 있기는 하는데 한국 섬유 기업의 요구의 20~25%로만 부응하고 있다.

전자 설비 및 부품 생산 업종이 2012 년부터 제일 많은 투자 금액을 갖는 5 위 업종으로 높은 순위를 점점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 생산 부분에 대표적인 삼성, LG 등은 베트남에 끊임 없이 투자하고 투자 규모 및 제조 공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게 신규 기술을 이전 받고 습득하는 기회를 가져오게 한다. 그런데 실은 2010 년까지는 베트남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이 완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없고 부품만을 조립 공장만 있을뿐이다. 통계 결과는 한국 제조업들이 부품을 80%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공장은 이 비율이 100%로 차지하고 있다.

위에 삼성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기업 리스트를 다시 보면 삼성의 하청기업들이 대부분 외국회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베트남-호찌민 삼성의 공장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기업 중에 약 10 개 기업이 베트남 기업이며 14%만 달한다. 베트남현지 한국기업이 11%를 차지하여 남은 75%는 베트남 현지 다른 외국기업이나 한국과 외국 현지 외국기업이다. 베트남 Bac Ninh, Thai Nguyen 에 새로운 삼성의 2 개 공장이 모두다 한국업체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베트남 업체들이 외국투자자에게 부품, 생산 재료를 공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 국내 기업의 약한 기술 능력을 보여주고 이를 극복 못 하여 유지하면 베트남이 아무 신규 기술을 습득 못 하고 조립 공장이 될 뿐이다.

베트남현지법인 한국업체나 외국업체의 부품을 우선 납품하는 것은 한국기업들이 추구하는 단독투자로 투자하는 형태과 함께 베트남 경제에

불리한 점이 있다. 베트남 제조업체들이 점점 없어지고 외국업체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다. 외국기업에만 의존하는 한 국가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제가 아니며 국내 기업들이 튼튼해야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타국에 영원히 체류하고 경제를 뒷받침 해줄 수는 없다. 특히 단독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언제든지 모두 다 투자유치국에서 철수할 수 있고 투자유치국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다. 상승 인건비 때문에 한국기업, 또한 외국기업들이 전에 세계의 시장이였던 중국에서 떠나고 있는 상황과 같이 어느 순간에 베트남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에 많이 의존하면 이런 기업들이 철수하는 것이 베트남 경제를 불리게 만들고 불황에 빠지게 할 뿐이다. 베트남 기업들이 기술적 능력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외국 투자자에게 부품, 재료를 공급 해주는 하청기업으로 남아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외국투자자가 베트남에 철수 할 때 베트남에는 황폐한 공장만이 남을수 밖에 없다.

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끄는 베트남의 pull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기업들이 이런 요인을 잘 활용하여 베트남에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이 한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해외 국가의 투자를 받기 위하여 현재 갖고 있는 pull 요인들을 잘 유지하며 더욱 발휘해야 한다. 베트남은 아세안 및 세계적 전략적 지리 위치. 안정된 정치 및 많은 국가와 좋은 외교관계 등의 요인이 고정 되며 강력한 장점이 되고 있다. 전에 중국시장 및 아세안권의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소유하는 것이 베트남의 현재 가장 큰 이점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노동력의 질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신기술을 습득하며 또한 개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이런 베트남의 질이 좋은 노동력을 잘 활용하여 신기술을 이전하는 전략에 대해 잘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야 부품, 자원 및 인적자원을 수입하는 비용을 줄이며 생산 효과를 늘릴 수 있다. 또한 생산인구가 상승하며 아울러 교육수준과 생활 수준, 소비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요인을 바탕으로 베트남 내수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투자 정책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혜택뿐만 아니라 지역 만의 경제 개발을 하는 자주적인 특징을 잘 이용하여 더 많은 투자 혜택을 받고자 노력 해야 한다. 즉 베트남에 투자하면 정부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정부와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둘째,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시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면 2000 년까지 삼성, LG, 현대, 대우, 효성, Posco 등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베트남에 진출하였다. 이런 대기업들이 서로 여러 부분에 대한 경쟁자이다. 또한 다른 외국 경쟁 투자자도 베트남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에 등장한 후에 이런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디&영 이론에 따라 역시 베트남의 해외직접투자를 끄는 pull 요인 중에 하나이다.

셋째, 기디&영 이론에 따라 하청기업의 진출은 투자자에게 안정한 투자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베트남의 pull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삼성의 하청기업 사례를 검증하는 결과는 베트남이 이 요인을 수용 안 한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삼성의 하청기업이 대부분 외국 기업이나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이며 이는 외국 투자자에게 공급 못 하는 베트남의 약한 기술력을 보여준 것이다. 개발 도상국인 투자유치국들이 과학 기술이 좀 낮은 편이며 과학을 스스로 개발하는 힘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 자본이나 외국투자를 통해서 이전받는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고지마 이론을 활용하여 투자 규모 및 업종을 분석하며 투자국의 표준화된 열위산업을 받아들이며 자기의 우위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자기 기준과 적당한 신기술을 습득하여 산업고도화가 되는 개발 도상국으로써 투자유치국이 추구하는 일본형 투자 방식과 달리 한국이 베트남에 미국형으로 투자하는 추세가 있다. 미국형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의 독점을 확대하려고 하며 자기의 고급적 기술로 만든 자기의 시계적 강력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베트남은 한국의 공장일 뿐이다. 베트남의 경제 통계 자료는 매년 베트남의 산업성장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국 산업이며 내수화 못 하고 베트남의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즉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철수하면 베트남이 황폐된 공장만 남아있거나 기계가 있어도 기계를 운영하는 기술이 없다는 미래만 있을것이다.

본 논문은 아직도 한계가 있다. 첫째, 기디&영과 고지마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pull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직도 포괄적지 않고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pull 요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둘째, 본 논문이 pull 요인의 장점만 분석하여 단점 및 나중의 결과를 검증 안 하였다. 셋째, 고지마 이론을 활용하여 한국의 투자 방식이 일본형인지 미국형인지 분석함으로 베트남 경제에게 효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산업고도화 부분에서만 평가하였다.

참고 문헌

문해진, 2008.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장상애, 2008,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서울

마이김끼, 2011,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 (FDI) 현황 및 경제적 효과.한국의 FDI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서울

이중배, 2011, <<베트남과 태국 투자 한국기업의 진출동기 및 성과분석에 관한 비교>>, 아주대학교, 수원

권경덕, 2005, <<ASEAN 발전에 따른 한국-ASEAN FTA 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서울

이일주, 2008, <<동남아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성과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응웬티럼투이, 2011,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경영대학원, 대전

류재영, 2009, <<한국 다국적기업의 베트남 직접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호서대하교 대학원, 충청남도

신영균, 1999, <<한국투자 환경 및 유피 정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

손승호, 2008, <<한국기업 베트남 직접투자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1996-2000 투입산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한국 수출입은행, 2004, <<아세안(ASEAN) 현황 및 투자 환경>>, 한국수출입은행

조영태, 2012, <<베트남에서 기회를 잡아라>>,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조흥국 [외 연구], 2011,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혜정.장용준, 2010,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수출입은행, <<2010,~2013 연도 한국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아세안진출 한국기업 운영실태>>, 대한무역진흥공사

Website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주베트남대사관. http://vnm-hanoi.mofat.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베트남투자계획부. www.mpi.gov.vn

베트남통계청. www.gso.gov.vn

호찌민- 베트남 경제개발 연구소 . http://www.hids.hochiminhcity.gov.vn/

Abstract

KOR's FDI to Vietnam: Focusing on Pull Factor

NGUYEN THI VAN ANH

Dept. of Korean Studie - GSI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late of 1980s, as the consequence of the dramatic development of the economy, Korea started to face the labor shortage issue and the increase in labor costs. In order to mainta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its competitiveness, Korea had to search for a new market providing a lower production cost by eyeing a market abroad.

In 1990s, China raised as the most attractive country for investment with its abundant and cheap labor resource. However, China could not retain its advantage for so long since the cost of Chinese workforce started to increase due to the impact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coming from FDI sources. Therefore, in the 2000s, Korea, as the same as other developed countries, searched for a new market, and aimed to Southeast Asian and Southern American nations. In the Southeast Asia region, Vietnam now is recorded as the largest FDI invested country from Korea. According to other research about Korea's FDI investment in Vietnam, the author would like to bring a different look about the investment relation.

The research attempts to address two questions:

- The reason why Korea selected to invest in Vietnam as a priority over other countries in the Southeast region.

- The investment strategy which Korea would implement in Vietnam at the present and in future, and their influences on the Vietnam's economy.

In order to answer the first question, the research would like to apply the Gidi&Young theory to verify which pull factors Vietnam is owned. Thereby,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Vietnam and other Asian countries, it will bring out the strength points of Vietnam. Especially, the research also focuses on two factors which related to the competitive time of the businesses and investor's vendors make an investion before and after the investor. These two elements mentioned in Gidi&Young theory, which helps investors estimate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and safety of the market. These two factors also the necessary pull factor of the host country.

For the second question, the author implements the Kojima theory to classify the FDI investment model into two categories: American method and Japanese method. American FDI investment style aimed to maximize the profit of monopolies, expand the market to increase the global market share. Besides, Japanese FDI mainly invests in standard industries. Due to high production and labor cost, some standard domestic industries are losing their advantages in home country to developing countries. In fact, Japanese investment method helps the investor retaining the manufacture industry. Also, the investee can have a chance to approach the new technology and take it as a foundation for the economic growth. As a developing country, Vietnam expects to obtain FDI from Korea by following the Japanese method to promote the industrialization. However,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Korea has alternate their investing way from Japanese method to American method. This change would be a disadvantage of Vietnam's economic growth.

Keywords: FDI, Vietnam, Gidi&Young, Kojima, full factors

Student ID.: 2013-22718